

영화인기에 편승한 '영화소설' 들

원작없는 소설 급조... 중복출판 등 폐해도 많아

19세기말 영화가 발명된 이래 소설은 영화의 가장 일반적인 소재가 돼 왔다. 영화가 차츰 대중문화의 총아로 떠오르기 시작한 최근에 들어서면서부터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 베스트셀러 소설은 곧 영화화된다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가 되었다.

최근 서점가에는 이같은 현상과는 또 다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소설을 소재로 하지 않은 영화, 즉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개봉됨과 동시에 원작시나리오들이 소설로 둔갑해 서점에 깔리고 있는 것이다.

중복출판 등 심각한 문제 발생

《서편제》처럼 소설로는 인기를 끌지 못했던 작품이 영화에서 성공을 거둔 다음 소설이 다시 대중들의 관심을 끌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예는 가끔 있어왔던 일이다. 영화와 소설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거두기가 무섭게 원래 없던 소설을 만들어내 소설책처럼 판매하는 요즈음의 현상은 소설과 영화의 올바른 공존을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원래 없던 소설을 영화가 성공을 거두자 소설처럼 묶어낸 책은 서점 어디엘 가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주요 개봉관에서 수입 상영되는 거의 모든 외화는 영화개봉과 동시에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있으며, 그중 30% 정도는 원작소설이 없는 책들이다. 이 책들은 대형서점 매장에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올 하반기 국내에 개봉되어 흥행에 성공을 거두고 주인공 킬러의 옷차림을 흉내내는 젊은이까지 양산해낸 릭 베송 감독의 영화 《레옹》을 책으로 묶어낸 《레옹》과, 93년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틀 거머쥐고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은 제인 캠피온 감독의 영화 《피아노》를 소설화한 《피아노》, 93년에서 94년에 걸쳐 국내 영화팬들의 큰 사랑을 받은 영화 《퐁네프의 연인들》을 소설로 만들어낸 《퐁네프의 연인들》 등이 있다.

이 소설들은 대부분 책의 도입부 10여쪽을 영화장면 사진으로 장식하고 있으며, 책의 표지에 릭 베송지음, 제인 캠피온 지음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기가 무섭게 원작도 없는 소설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책은 원작자도 불분명하고 번역도 엉성한 데다가 중복출판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같은 현상은 영화계와 출판계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등 감독을 원작자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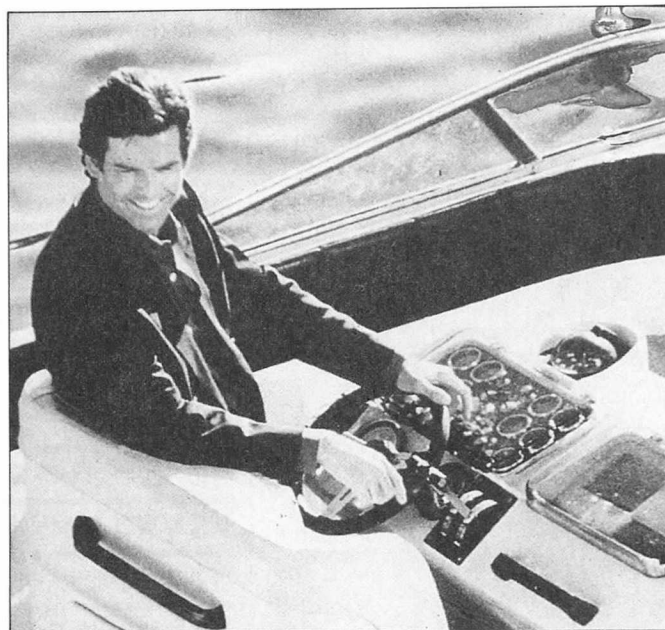
이같은 영화소설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중복출판. 보통 한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거의 동시에 2군데 이상의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간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한 예로, 인물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 영화와 비디오로 소개되어 반향을 불러일으킨 스파이크 리 감독의 《말콤 X》의 경우 3~4곳의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들이 서점가에 나와 있으며, 이들 소설 《말콤 X》는 모두 《뿌리》의 원작자인 알렉스 헤일리의 지명도를 빌려 책 표지에 '알렉스 헤일리 기록'이라는 애매모호한 작가소개를 하고 있다.

영화수입사들의 책임도 있어

이들 책이 서점가에서 상당한 판매부수를 기록하자 영화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소설로 출간하는 해괴한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속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책은 영화와 비디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지명도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가공소설이다. 물론 원작도 없고 이 영화의 속편은 만들어 지지도 않았다. 결국 출판사에서 영화 이후의 상황을 가상으로 그려내 급조한 국적불명의 책임 셈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급조된 출판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는 영화사들의 책임도 있다. 영화사들이 출판사를 부추기는 예



원작없는 영화의 인기를 등에 업은 소설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영화 '007 시리즈' 중 《골든 아이》의 한 장면.



원작자 없는 영화소설들은 오히려 '영화'와 '문학'의 예술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도 흔히 있는 것.

영화사가 출판사와 결탁해서 영화의 수입개봉과 때를 맞춰 책이 출간되게끔 하는 이유는 바로 출판에서 얻을 수 있는 홍보효과 때문. 즉 같은 제목이 등장하는 광고는 영화, 출판 모두에게 투자 이상의 광고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영화사는 영화광고를, 출판사는 동명의 소설광고를 하면서 얻는 상승효과를 양측 모두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영화를 출시하기 전에 책을 출판해줄 출판사를 모색하는 것이 영화사측의 일반적인 사전작업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며, 심지어는 이런 원작없는 영화소설만을 내는 출판사가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90년대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이같은 현상을 출판, 영화계는 모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출판계는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중에 이처럼 상업성에 기대어 출간되는 알뜰한 출판물들이 독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론을 펴고 있다.

독립된 예술로 살아남아야

영화관계자들도 영화와 문학이 독립된 예술로 살아남는 것이 서로의 올바른 공존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영화평론가 김경욱씨는 "영화는 영화로서 독자적인 예술성과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예술적 깊이를 가지는 것이 두 장르의 원활한 교류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급조된 영화소설들이 쏟아져 나오는 최근의 이같은 풍토는 "영화와 문학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허연 기자